

### 그리운 금강산 사진으로 만나다

조계종 민추본, 이정수 사진전

6월 8~15일 갤러리 나무서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법타, 이하 민추본)는 창립 16주년을 기념해 이정수 사진전 '금강산, 그리고 신계사'를 개최한다.



남북 화해를 염원하고 금강산 관광 및 남북교류가 하루빨리 재개되길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마련된 이번 사진전은 6월 8~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갤러리 '나무'서 진행된다. 개전식은 6월 8일 오후 3시 개최한다. 민추본은 8일 간 이정수 사진작가의 신계사와 금강산의 사계 및 불교유적 사진 40여 점을 대중에 전시한다.

이번 전시는 남북 화해를 염원하며 금강산 관광과 남북간 교류가 하루 빨리 재개되기를 기원하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또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 남북 불교계가 공동으로 복원한 신계사와 아름다운 금강산의 절경을 사진으로나마 다시 보고 남북의 화해를 기원하고자 마련됐다.

한편 이정수 사진작가는 2010년에도 민추본 주최 금강산 신계사 낙성 3주년 기념 사진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밖에도 KBS 시민기자상, 서울특별시 표창, 대한매일신문 금강산 공모전 금상, 한국관광공사 금강산 공모전 특별상, 현대 금강산관광 1주년 기념 감사패 등 수상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불교문화상품 공모

8월 16~20일 접수... 대상 500만원

창의적인 문화상품을 바탕으로 템플스테이 확산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제8회 불교문화상품 공모전을 실시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성효)은 8월 16~20일 불교문화관광관련 콘텐츠·템플스테이·사찰음식을 주제로 한 문화상품과 기념품 등의 작품을 공모한다. 판매가 10만원 미만의 상품이어야 하며, 문화사업단이 제공 하는 설화·디자인을 활용해도 된다. 단 제공되는 템플스테이 캐릭터(아생여당) 활용작은 템플스테이 운영물품으로 공모부문을 제한한다.

참가희망자는 템플스테이 홈페이지(www.templestay.com)에서 참가신청서와 작품설명서를 받아 작성한 뒤 시제품 또는 상품디자인 판넬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해와 달리 일반·학생부문을 통합해 진행된다. 대상(상금 500만원) 1명을 비롯해 우수상·장려상·특선·입선·특별상 등 36명의 수상자를 선정한 계획이다. 결과발표는 9월 9일, 시상식은 29일 예정이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 세계인, 韓 명품 불교프로그램 만난다

## BTN, KAC와 '해외 한국어 방송 방영권' 협약 체결

BTN 불교TV 정규프로그램과 명품 다큐멘터리를 전 세계인이 시청하게 된다.

BTN 불교TV(대표이사 구분일, 이하 BTN)는 5월 26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과 '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협약'을 맺고 해외한국어 방송사에 일부 BTN프로그램의 공급을 진행키로 협의했다.

이에 따라 BTN의 인기 프로그램인 'TV멘토링, 소감', 'This is Hwansan sunim(디스이즈 환산스님)'과 다큐 '불복장(佛腹藏)' 등이 미국, 중국,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몽골, 케냐, 베트남 7개국에서 방송된다.

'해외 한국어방송 지원사업 방영권 제공'은 정부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매년 국내외 방송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진행해왔다.

현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파악하고 있는 해외한국어방송사는 총 87개. 그 중 17개사에서 BTN콘텐츠를 공급받기 위해 사전 신청했다.

청했다.

대부분의 선정 프로그램이 '무한도전', '진짜사나이' 같은 예능프로그램이 주류를 이룬 가운데 종교 채널 중 유일하게 BTN 프로그램이 이름을 올리는 쾌거를 이뤘다.

### 종교채널 중 유일 선정 '왜?'

미국·뉴질랜드·케냐 등 7개국

해외 방송사에 7월부터 공급

이번 BTN프로그램을 신청한 한국어방송사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곳은 케냐 나이로비에 위치한 GBS다.

BTN측은 "한국의 불교와 전통문화를 다룬 BTN프로그램이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전파를 탄다는 데 의미가 깊다"고 밝혔다.

해외 한국어방송사에서 방영될 예정인



2015년 불교인문문화상 대상작인 BTN '은밀한 의식, 불복장(佛腹藏)' (사진 위)과 2014년 불교인문문화상 최우수상작인 '불도의 식사(食思)' (사진 아래)의 스틸사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과 '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협약'에 따라 전 세계에 방영된다.

BTN프로그램은 총 5개의 타이틀로 △다큐 △법문 △교양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주요 콘텐츠로는 2015년 불교인문문화상 대상작 '은밀한 의식, 불복장(佛腹藏)'과 2014년 최우수상 수상작인 '불도의 식사(食思)'를 비롯해 한국 선불교와 명상에 대해 강한 'Hello, This is Hwansan sunim' 등 48편, 각 분야에 활동하고 있는 이 시대 멘토들의 강연을 다룬 TV멘토링 '소감' 49편, 아름다운 영상과 테마 여행 길라잡이 '여행 포엠, 소풍' 6편이 공급대상 프로그램에 선정됐다.

BTN 관계자는 "이번 선정에 따라 자체 제작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 뿐만 아니라 한국문화와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면서 "또한 다큐뿐만 아니라 50여 편의 시리드로 구성된 정규프로그램이 2작품이나 선정됐다. 이는 불교콘텐츠제작 보급의 새로운 희망 영역이다. 앞으로는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위해 해외 시장을 겨냥한 맞춤형 콘텐츠 제작에도 주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 장인이 피워낸 '紙花' 꽃놀이 하러 가볼까

국립무형유산원, 8월 31일까지 기획전시회

불교의례 지화부터 왕실 공예까지 '한눈에'

전통공예 속에 나타난 꽃을 주제로 선보이는 특별전 '장인이 피워 낸 꽃'이 열린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8월31일까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마루 2층 기획전시실에서 '장인이 피워 낸 꽃'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영산재 등 불교의례의 재단을 화려하게 꾸미는 종이꽃과 꽃을 소재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작한 각종 공예품 등을 한자리에 모아 한국 문화에서 꽃으로 표현된 다양한 시대적 상징과 전통 공예기술의 정수를 소개한다.

장인이 피워 낸 꽃 특별전에서는 △불교의례의 위엄을 더하는 장엄구(莊嚴具)인 종이꽃 '지화'(紙花) △인공의 꽃 '가화'(假花) 제작과 꽃무늬 장식의 전통 △소망과 염원을 담은 길상(吉祥)의 꽃 △선비의 멋과 이상을 재현한 꽃 △조선 후기 문인의 지성사가 피워 낸 꽃 공예의 전통 △간축의 단장을 위한 꽃 △꽃 공예의 밑그림인 도안(圖案) 등의 내용을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작품과 관련 유물 등 전시품 100여점을 비롯해 다양한 매체의 영상과 사진이 종합적으로 전시된다.

먼저, 국가무형문화재이자 유네스코 인류무

형유산인 영산재에서 볼 수 있는 종이꽃 '지화'는 불교의례와 무속의 굿에서 지화 장엄의 전통을 잘 간직한 대표적 예로, 의례 공간을 신성한 장소로 변환하고 '죽음'과 '재생'을 상징



영산재 보존회 해월 스님의 작품 '영산재 부채난동'

하는 주요 장엄구다.

전시에서는 연출영상과 공간재현을 통해 이들 작품이 전체적인 의례의 맥락 속에서 이해될 수 있도록 했다.

꽃을 소재로 한 조선왕실 유물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작한 공예품은 한국 전통공예기술의 진가를 보여준다.

이번 전시회에 대해 국립무형유산원은 "전통공예품을 종목별, 기법별로 단순히 나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꽃을 주제로 전통공예와 가화 전통이 갖는 문화적인 상징 의미를 녹여내도록 연출했다"면서 "우리 삶의 전통적 소망과 이상 그리고 내세관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별전 기간에는 꽃 소재 공예품의 제작과정에 대한 관람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문화가 있는 날인 수요일과 매주 토요일 오후에는 나전·자수·화각 등 종목별 전승자들이 실제로 꽃 공예작품을 제작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는 '장인의 공방'이 전시실에서 운영된다.

아울러 기간 중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는 8세 이상 어린이 15명을 대상으로 특별전 전시해설과 함께 전승자가 직접 공예 제작방법을 가르쳐주는 체험교육 '내가 피워 낸 꽃'이 무료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국립무형유산원 홈페이지에서 사전접수하며,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063)280-1400 **신성민 기자**

## 어르신 신인작가님들 개인전에 도전하세요

탐골미술관, 작가 공모사업 실시

세대 간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서울노인복지센터 탐골미술관(관장 최희유)이 신진작가 지원 사업에 나선다.

서울노인복지센터 탐골미술관은 '2016 탐골미술관 신인작가 지원사업'으로 작가공모를 실시한다. 공모 접수는 7월 1일부터 29일까지. 2015년에 이어 두 번째 진행되는 신진작가 지원사업은 사회의 선배시민인 어르신이 신인작가의 첫 개인전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공모분야는 평면, 입체, 복합, 미디어 등 모든 분야 가능하다. 40세 미만의 첫 개인전을 준비하는 작가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어르신과 함께 문화예술교육 진행이 가능한 작가는 우대한다.

참가를 원하는 작가는 공모신청서 1부, 최근 3년의 작품 이미지 10점 내외가 담긴 포트폴리오 3부를 제출하면 된다. 공모신청서는 서울노인복지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전시회는 8월 중 포트폴리오 심사에 이어 단체전 관객투표, 프리젠테이션 심사를 거쳐 2017년 2월 4주 간 개최될 예정이다.

탐골미술관장 최희유 스님은 "선배시민인 어르신이 신인작가에게 생애 첫 개인전의 기회를 열어주고 작가는 그에 대해 창작물로서 화응하는 세대 교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02)6220-8595 **신성민 기자**

## 우리 삶을 바꾸는 기적, 절 수행!

### 청견 스님의 천만배 완결 **깨달은 절수행이란?**

몸과 마음을 온전하게 알아차리고 다스려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방법!

고통과 절망에서 희망과 행복의 길로  
이끌어줄 '절 수행'의  
구체적인 방법과 생생한 경험담!



**다르마킹 칼리지**  
매주 화~토 오후 2시  
절 교육 및 수행 점검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의 저자  
청견 스님의 신작!

전국에 108배 열풍을 일으킨 청견 스님이 그동안 천만 배의 절을 하며 체험한 이야기들과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뜨거운 울림들을 담았다.

현대인이 겪는 몸과 마음의 질병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입증한 절 수행의 기본 동작부터 마음가짐, 그 속에 담긴 의미까지, 첫 책보다 더욱 깊고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중간중간 그려 넣은 다양한 일러스트는 책을 보다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청견 스님 지음 / 신국판 / 328쪽 / 값 15,000원